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9>

한 스님이 물었다.
"1구(一句)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만일 1구를 지키고만 있으면 너는 어느 새 늙어 버릴 거야."

問 如何是一句 師云 若守著一句 老卻你

1구란 부처님이나 선사들이 던지는 핵심적인 한마디를 말한다.

불법이나 도를 드러내는 1구는 화두일 수도 있고 도에 대한 함축적인 비유나 간단한 문구일 수도 있다.

선가에서 골똘히 생각하며 '뜰 앞의 잣나무' '조주무자(趙州無字)' '판치생모(板齒生毛)'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 등의 화두를 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뜻을 알아보고 하루 종일 혹은 꿈속에서도 화두를 생각하고 탐구한다.

한동안 1구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화두는 글자 안에 담이 있지 않고 화두 밖에 담이 있다. 화두의 의미를 안 사람들은 모두 그 바깥을 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나중에 화두를 집어던져버렸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빨리 화두를 타파하고 부처의 행으로 돌입해야 한다.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하지 않고 화두라는 글자 1구에 갇혀버린 채 늙어버렸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임제 스님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자들을 향해 '자기 머리를 두고 또 머리를 찾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대는 이미 부처라는 말이다. 이것을 알면 그만인데 또 다시 부처가 되려고 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것만큼 쓸데없는 짓은 없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너희들이 일생동안 총림을 떠나지 않고 5년,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을 때 너희들을 병어리라고 하는 자가 없다면 이후 부처라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노승의 머리를 질러라."

師又云 若一生不離叢林 不語十年五載 無人喚你作亞漢 已後佛也不奈何 你若不信 截取老僧頭去

화두를 던져버려라

5년·10년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망상이 줄어들다는 말이고, 남과 말할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했다는 말이다. 원래 병어리가 아니고 다만 수행하기 위해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대중이 이구동성으로 말 할 정도라면 그만큼 수행에 몰두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망상을 피우지 않고 5~10년간 화두 하나에 목숨을 건다면 누구든지 부처 이상의 경지에 오를 것이라고 조주 스님은 말하고 있다. 이 법문은 조주 스님이 처음 남전 스님에게 출가한지 5~10년 만에 도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하나의 단서이다.

사실 5~10년은 조주 스님이 넉넉하게 말한 것이다. 적어도 목숨을 걸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시간을 준 것이다.

옛날에는 단 한 번의 말 한 마디에 그 깊은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다. 중국의 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임제·대혜 스님 등이 그러했고, 덕산 스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문득 깨달았다.

또, 옛 선사는 7일간 정성을 다해 수행해도 깨달

行履處 莫改舊時人 共各自家出家以來無事 更問禪問道 三十二人聚頭來問 恰似欠伊禪道 相似你喚作善知識 我是同受考 老僧不是數好 恐帶累他古人 所以東道西說

사람이 업보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타마 싯다르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도를 깨달아 부처가 됐다. 깨달은 순간 육신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부처라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한다. 깨달음을 통해 과거의 행위만 고치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더 이상 무엇이 될 것은 없다.

조주 선사는 "수행자는 다만 과거의 행위만 고칠 뿐이지, 더 이상 선지식이라고 부르면서 누구를 찾아가서 선과 도를 묻는 행위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행동들은 마치 선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따지려 다니는 것과 다를 바

가 없다는 것이다. 조주 선사가 이렇게 말한 뜻은 "중생은 원래 부처"라는 사상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부터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은 즉시 완성이자. 수행자는 다만 오래 묵은 중생의 습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더 이상 선도를 묻거나 선지식을 찾는 일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선지식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양자(兩者)가 죄를 짓는 행위라고 설법하고 있다. 사람은 원래 완벽하다. 완벽한 자가 무엇 때문에 다시 선지식을 찾아야 하겠는가. 완벽한 자가 완벽한 자를 만날 때는 대등하게 차나 마시면 된다. 평범한 산중 사람에게 '선지식'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깨끗한 곳에 티를 묻히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선사가 자기를 두고 선지식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선사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 요즘은 누구나 선생이 되고 싶어 하고 윗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선사는 선지식이라는 칭호에 집착하지 않는다. 선사는 다만 옛 사람들이 미몽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동도서설(東道西說)을 늘어놓는 것이다.

사람은 이미 완벽한 부처이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본성은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경험해도 전혀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부처라고 말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임을 즉시 깨달아라.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문 14

오분 법신을 향에 비유하다

향을 피운다는 것도 세상에 있는 향이 아니라 무위(생멸 변화를 넘은 상주절대의 진실) 정법(正法: 올바른 진리)의 향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고 무명과 악업을 끊어 모두 없어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 정법의 향은 다섯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계향인데, 말하자면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두는 것이니라. 둘째는 정향인데, 대기(大機: 禪의 깊은 경지에 이끌어 들어가게 하는 커다란 움직임)를 깊이 믿어 마음이 물러남이 없는 것을 말하느니라. 셋째는 해향인데, 항상 몸과 마음을 안팎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며, 넷째는 해탈향인데, 온갖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을 말하고, 다섯째는 해탈지경향인데, 느끼고 살피는 것이 항상 분명하여 걸림없이 통달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 다섯 가지 향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향이라 견줄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로부터 여여금 이와 같이 값진 향을 사루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라 하셨는데 요즘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여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밖의 불로 세간의 침단이나 훈육 등 형체가 있는 향을 사르며 복을 바라니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원문]

燒香者亦非世間有相之香 乃至無爲正法之香 薰諸臭穢 斷無惡業 悉令消滅 其正法香有五種 一者戒香 所謂能斷諸惡 能修諸善 二者定香 所謂深信大乘 心無退轉 三者慧香 所謂常於身心內外觀察 四者解脫香 所謂能斷一切無明結縛 五者解脫知見香 所謂覺察常明 通達無礙 如是五香 名最上香 世間無比 佛在世日 令諸弟子 以知慧火 燒如是無價寶香 供養十方一切諸佛 今時衆生 愚癡鈍根 不解如來 眞實之義 唯將外火 燒於世間沈檀薰陸質碍之香 希冀福報 云何可得 又散花香.

[해설]

달마 스님이 말한 향을 피운다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괴로움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생깁니다.

반야의 도리에서 본다면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본다면 걸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 할 뿐이지 우리의 몸도 어제와 오늘 분명 변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은 1초 전 · 후가 다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모든 물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달마 스님이 말하는 향이라는 개념은 우주로 하나의 마음

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육신 낼 일도 없고 진심을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본다면 경계가 다 끊어지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향을 올리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계향 · 정향 · 해향 · 해탈향 · 해탈지경향을 오분향이라고 합니다.

계향은 계율을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대상이 다 끊어지면 계를 지킬 부분도 없고 살생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악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계를 지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반야 법에서는 지켜야 되는 대상을 생각하게 돼 이분법 사고가 됩니다. 그런 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말하는데 우주를 하나로 보고 내 본래 마음이 부처라 믿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도 나의 참 부처리를 생각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고 내 마음이 부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게 될 때 이것이 정향입니다.

혜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일체가 하나의 마음'이라고 항상 관하며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탈이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우주를 하나로 쓸 수 있는 (이)와 (사)에 걸림이 없는 무애행을 말합니다. 무명이란 어리석고 밝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살게 되면 좋다 나쁘다 나눠지고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본다면 너도 나도 생사도 없는 마음을 갖게 돼 어느 곳에 묶이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하면 집착하는 만큼 아픔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향입니다.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오직 정진의 힘 밖에 없습니다. 정진을 통해 이와 사에 걸림이 없이 행할 때 향기로운 회향이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꿈 속에서 꿈 꾸다 깬 것처럼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꿈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죽게 되면 꿈을 꾸다 깬 것과 똑 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나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안다면 해탈지경향이 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올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됩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품목 특성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진산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팀샤워,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실업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목실청소 등
- 규 격 - 30cm x 30cm(소) / 30cm x 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용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 각 15,000원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진산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팀샤워,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 격 - 진산용 (30cm x 130cm)



‘건포·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를 중심으로 등골까지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조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사지가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사지가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조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사지를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좋아지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철의 외상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납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으므로 때가 안 납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돋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